

일제하 국내언론을 통해 본 경기도 수원군 지역민의 일상과 식민지의 그늘

황민호*

- I. 머리말
- II.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생활 단편
- III. 일상에서의 식민지의 그늘
- IV. 가난과 질병, 그리고 지역민으로서의 일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시기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현재 화성지역 주민들의 일상이나 생활단편에 대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기사를 검토하여 정리해 본 논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상에서 스며있는 식민지적 상황과 그 그늘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화성지역은 일제시기에는 수원군 가운데 봉담, 우정, 향남, 남양, 매송, 비봉,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면지역 등이 해당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염전이 발달하였으며, 해일이나 해난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왕가(李王家)의 말 목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양잠업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에서는 내선융화가 강조되고 있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었으며, 재경 유학생의 강연회에는 일본인 경찰의 감시받았다.

양감청년회의 야학은 적화선전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폐쇄 당하였으며,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군자금 모집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수원읍과 발안시장 간의 전화(電話)는 면민에게 부과된 부가금을 예산으로 설치되어 일제의 식민지 공공정책이 갖는 한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국방헌금이나 홀병헌금을 내야 했으며, 육군과 해군에게 제공되는 애국기 수원호 헌납운동, 혹은 전선 장병을 위한 위문대 보내기 운동 및 특별지원병 참여 등이 강요되고 있었다.

지역에서 개최된 운동경기의 경우도 검도의 경우는 일본인이 심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산 짐승에 의해 공동묘지가 훼손되기도 했으며, 엄격한 밀주단속이 이루어지 등 지역 주민들은 쉽지 않은 식민지의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어 : 수원군, 화성시, 이왕가 목장, 동아일보 발안분국, 양감청년회, 조암시장, 애국기 수원호 헌납운동, 수원 자혜의원

I. 머리말

1910년 8월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를 중심으로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1913년 12월 29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발표하여 도와 부·군의 명칭 및 위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는데 일제시기 지방행정구역의 기본 골격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일제는 부(府)는 가능한 한 제한하고 군(郡)은 면적 약 40방리에 호수는 약 1,000호를 한도로 했으며, 이에 미달하는 군은 인접 군에 병합하였다. 면(面)은 약 4방리에 호수는 300호를 한도로 하여 이 조건에 미달하

는 곳은 합병 정리하였다.)¹⁾

그리고 1914년 4월 1일부터는 면·리의 행정구역도 개편되었는데 경기도의 군·면의 통폐합은 대체로 1916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시행되었다. 1914년 4월을 기준으로 수원군은 수원·일형·태장·안룡·매송·봉담·향남·양감·음덕·마도·송산·서신·비봉·팔탄·장안·우정·의왕·정남·성호·동탄·반월 등 21개 면, 279개 리(里)가 속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화성시는 대체로 수원군의 일부에 속하였으며, 그 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1914년 화성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군별	개편이전 면	개편이후 면	군별	개편이전 면	개편이후 면
수원군	매송, 송동	매송면	남양군	음덕, 둔지곶	음덕(남양)
	산동, 갈담	봉담면		쌍수리, 마도	마도
	남면일부, 공향, 분향리	향남		송산, 수산, 세곶	송산
	상홀, 양운, 감매	양감		여지곶, 저팔리	비봉
	남곡, 정림	정남		공향 일부, 팔탄	팔탄
	어탄, 동북	동탄		장안, 초장	장안
			우정	우정	

한편 현재의 화성시를 2018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4읍 9면 13동, 837통리, 4396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지도는 <그림 1>과 같다.

1) 「도의 위치, 관할 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조선총독부관보(호외)』, 1913년 12월 29일.



〈그림 1〉 현재 화성시의 행정지도(2018)²⁾

화성시의 자연환경은 안산·평택시와 더불어 서해안과 직접 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반월천과 동화천이 유입하는 송산면 읍포리부터 남양만 방조제 부근까지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는 송산면과 비봉면의 해안은 모두 간척되어 지금은 해안선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는 서신면 전곡리부터 우정면 이화리 남양만 방조제 입구까지의 152km 구간이 서해안과 인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모습은 드나들이 대단히 복잡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다.³⁾

일제시기의 화성지역민들은 어업과 농업이 연결된 생활환경 속에서 식민지의 일상을 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시기 국내에서 발행된 3대 일간지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매일신

2)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503.html>)

3)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1, 2005, 13-14쪽.

보』 기사에 보이는 수원군 특히 현재 화성지역 사람들의 생활 단편의 특징을 정리보고자 하며, 이는 일제하 일정지역의 생활사와 지역사회에 드리워진 식민지의 일상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생활 단편

일제시기에 화성지역은 해안선이 긴 서해안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상황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매일신보』 1916년 2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1월 28일 마도면장 홍인유(洪麟裕)는 제염사업(製鹽事業)의 개량을 위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의 제염업자 50여명을 면사무소로 소집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향후의 방침 등을 설명했는데 제염업자들 모두는 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 회의에는 南陽金融組合 理事 尾崎俊甫와 製鹽組合長 趙昌濬, 제염조합의 顧問 伊藤藤吉과 金禹權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제가 소금의 생산방식을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인 우리의 자염(煮鹽) 또는 전오염(煎熬鹽) 방식에서 천일염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

1922년 10월 13에는 남양 해변에서 새끼 고래가 잡혀 18일부터 수원

4) 「경기도, 製鹽의 改良」, 『毎日申報』 1916년 2월 2일.

5) 조선전기에도 수원과 남양은 소금의 주산지였는데 당시 수원도호부에서는 6개소, 남양도호부에는 44개소의 염소(鹽所)가 있었으며 특히 44개의 염소가 분포했던 남양도호부는 조선후기에도 ‘남양 서쪽의 촌락이 한강 남쪽의 어염을 독점하며,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수백의 염호(鹽戶)가 늘어서있다고 묘사될 정도로 우리나라 굴지의 소금 생산지였다. 제염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 활발하여, 1930년 현재 10만 9천 여 평의 염전에서 진위·시흥·부천·강화군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의 14.6배에 달하는 소금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위의, 『화성시사』 1, 283쪽.

군 황금정(黃金町) 빈터에서 일반이 관람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이를 보도했던 『동아일보』에서는 얼마 전 고래 한 마리가 ‘한강으로 올라와 좁은 강물에서 큰 몸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다니던 중 사람들에게 잡혀’ 경성사람들이 의외의 고래구경을 하였다고 했다.⁶⁾

복어[河豚] 독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1925년 5월 10일 장안면 석포리 이규선(李圭先)의 집에서는 복어에 중독되어 79세의 어머니와 37세의 며느리가 즉사하였으며, 15세 된 손녀와 9세의 손자도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3세 된 어린 아들도 엄마의 젖을 먹고 중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1938년 5월 18일에는 양감면 송산리 강례선(姜禮善)의 집에서도 복어 국을 먹은 일가족 5명이 사상(死傷)하는 참변이 발생하였다. 강례선은 장안면 금의리에 사는 이호영(李虎永)을 데릴사위로 삼아 딸 정분(正粉)과 혼례를 올릴 예정으로 한 집에서 살았는데 본가에 다니러 갔던 이호영이 장인을 드리기 위해 복어를 사왔고 정분에게 요리를 부탁했는데 복어를 다룰 줄 몰라 알까지 함께 넣고 국을 끓여 사단이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이를 보도했던 『조선일보』에서는 삼녀 정식(正植, 10세), 사녀 정철(正哲, 6세)도 중독되었으나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현장은 참혹한 지경이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⁸⁾

한편 이 사건은 『매일신보』에 의해서도 기사화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복어를 요리한 딸의 이름은 정분이 아니라 순정(純精)이며, 이호영의 친척집에서 복어를 먹으라고 보내

6) 「南陽에 又鯨兒, 고래 새끼 한 마리 남양에서 또 잡혀」, 『동아일보』 1922년 10월 19일.

7) 「河豚 中毒 事件 頻頻, 婦女二名 慘死, 母乳로 三歲兒도 中毒, 수원에서 또 일가 오인 중독」, 『조선일보』 1925년 5월 17일

8) 「鰻魚국 끓여먹고 一가족 五名 死傷 翁孀는 卽死 女息 三名은 重態, 水原郡서 생김 慘變」, 『조선일보』 1938년 5월 21일.

온 것이었으며, ‘복어의 배에서 알이 툭툭 튀어나오자 차마 아까워 버릴 수가 없어 그대로 끓였으며, 생선이 ‘귀물’인 만큼 동네에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매일신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산 화남의원의 송순헌(宋鎔憲)이 왕진 출장하였으며, 마을 사람과 순정의 동생 등 5명은 매우 위독하다고 하였다.⁹⁾

해일과 해난사고도 있었다. 1933년 10월 22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비봉면, 음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일대에는 강한 서풍과 함께 조수가 밀려와 각지의 제방이 끊겼으며, 바닷물이 논을 침범하여 쌓아둔 벼가 바닷물에 잠가는 피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¹⁰⁾

조난의 경우는 1927년 11월 10일 우정면 이화리(梨花里) 포구에서 인천 모회사 소속의 목선 한척이 벼 200백석과 승객 3명을 태우고 선부(船夫) 3명과 함께 인천항으로 출발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선은 11일 아침 거꾸로 선채 우정면 운평리(雲坪里)의 포구에 왔으며, 시신 2구는 건졌는데 우정면 이화리 서경신(徐景信)과 같은면 사곡리(沙谷里)의 김금애(金今愛)이며, 나머지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¹¹⁾

농촌사회로서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사도 다수 게재되고 있었다. 1915년 5월 1일자 『매일신보』에 의하면 봉담면에는 ‘이왕가(李王家)’의 왕실

9) 「鰻魚알먹고 中毒되어 二名即死五名危篤 水原郡楊甘面에 慘禍」, 『每日申報』 1938년 5월 23일.

10) 「水原 飛鳳面에 22日 海溢, 被害莫大한 듯」, 『조선일보』 1933년 10월 26일.

11) 「載租船 顛覆 乘客全部沈沒, 선부 시체 두 개는 발견돼, 梨花浦에 大暴風」, 『동아일보』 1927년 11월 17일.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3일 아침 9시경 水原郡 雨汀面 雲呼里 바다 우에서 仁川府 삼당목 土木請負業 松田의 소유선이 폭풍에 그만 침몰되어 승객 3명과 선부 3명이 전부 몰사하였다는데 오늘까지 시체가 판명된 것은 4명뿐이며 승객의 성명은 알에와 갓다더라 水原郡 雨汀面 沙谷里 金今愛, 同面 梨花里 徐景信, 同韓某. 「船夫와乘客 六名이一時溺死, 시체발견은 아직 네명뿐」, 『조선일보』 1927년 11월 18일.

목장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李王家에서 經營하는 牧馬牧場 設置에 關하여는 聞한 바를 依한 즉 水 牧場은 水原驛을 距한 約 15里의 水原郡 峯潭面으로 決定하고 豫定の 敷地 約 300町步에 對한 買取를 丁한 故로 近日에 內地로부터 種馬의 購入을 爲할 터인데 當年은 試驗的 放牧에 止하고 牧草의 培養과 其他의 設備을 爲하여 逐年 擴張할 方針이라 하고 全事業은 營利를 目的치 아니함은 勿論인 즉 鮮馬牧○上에 裨益하는 바가 ○少치 아니한○○라더라.¹²⁾

위의 내용에서 보면 왕실에서는 봉담면의 토지 약 300정보를 매입하여 목마목장(牧馬牧場)을 설치하고 일본으로부터 종마를 구입하여 키울 예정인데 올해는 방목하지 않고 목초를 배양할 것이며, 매년 설비를 확충할 예정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조선의 마목(馬牧)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1923년 12월 매송면에 있던 23개의 진흥회에서는 구(舊) 정월 1일부터 색복(色服)과 초혜(草鞋, 집신)을 신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각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었다.¹³⁾

1925년 12월 14일 비봉면 사무소에서는 패발(稗拔-피뽑기대회)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리(里)의 구장과 내빈 및 관람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일등은 쌍학리(雙鶴里)였고 우승기가 수여되었다.¹⁴⁾ 그런데 수원군에서는 이미 1923년 10월경 산미개량(産米改良)의 일단(一端)으로 패발경진회를 각 면에 설치하고 피[稗]를 채집하여 성적이 우수한 면에는 표창농기(表彰農旗)를 수여하고 있었다.¹⁵⁾

12) 「李王家의 목장」, 『每日申報』 1915년 5월 1일.

13) 「舊年末을 一期로 色服草鞋勵行 水原梅松面에서」, 『每日申報』 1923년 12월 7일.

14) 「稗拔競進施賞」, 『동아일보』 1925년 12월 19일.

1925년 7월 13일에는 비봉면 자안리(慈安里)의 76세 노인 이승근(李承根)이 집에서 키우던 황소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 풀을 먹이던 중 황소가 갑자기 배를 들이받아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부상을 입고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기어서 집으로 가던 중 마을사람에게 발견되어 집에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공의(公醫) 나원용(羅元容)이 왕진(往診) 한 후 20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⁵⁾

1929년 9월 23일에는 팔탄면 고주리에 사는 김기홍(金基弘) 4살짜리 아들 종규(鍾奎)가 집 근처에 놀다가 얼굴과 전신을 벌에 쏘여 봉와직염(蜂窩直炎)으로 사망했는데 동리의 노인들은 이 같은 일은 처음 듣는다고 하며 긴 밤에 이야기 꺼리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⁶⁾

이밖에 마도면장으로 10년간 근무한 홍인유(洪麟裕)는 농가의 부업으로 양잠업을 권장하기로 하고 면사무소 내에서 잠견품평회(蠶繭品評會)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수원 군수 학기민행(鶴崎敏行)과 석교(石橋) 수원경찰서장 외 인근 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총 97건의 잠견이 출품되었는데 이 가운데 홍병유(洪炳裕)와 홍준유(洪駿裕) 외 17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일등에게는 잠박(蠶箔-누에를 치는데 쓰는 채반) 20매, 잠견(蠶繭-누에고치) 40매가 시상되었다.¹⁷⁾

그런데 이 내용은 『매일신보』 1923년 9월 20일자에는 보다 자세하게 게재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인 군수와 경찰서장은 한수(旱水) 재해가 많은 조선의 농업을 안전하게 보호 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양잠은 농

15) 「水原郡稗拔競進會」, 『동아일보』 1923년 10월 2일.

16) 「황소에게 받혀 뱀이 나와 죽어」, 『동아일보』 1925년 8월 4일.

17) 「벌에게 쏘여 卽死, 수원에서 생긴 일」, 『조선일보』 1929년 10월 1일.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도 ‘水原郡 八灘面 古洲里 金基弘(三〇)의 장남 鍾奎(四)는 뒷동산에서 밤을 주라다가 의외에 산벌(山蜂)에게 낫(顔)을 찌어 마침내 즉사하였다더라’라고 보도되었다. 「벌에 찌어 卽死, 卽死」, 『동아일보』 1929년 9월 29일.

18) 「蠶繭 品評會」, 『조선일보』 1923년 9월 24일.

민들이 당연히 행할 업무임을 강조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저녁에는 근검저축 위생과 산업에 대한 환등(幻燈)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고 한다.¹⁹⁾

1932년 10월 24일에는 서신면에 폭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수확물의 약 5할이 감소될 지경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크게 걱정하였으며,²⁰⁾ 1934년 7월 30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계속된 맹렬한 번개와 우박으로 매송면 호매실리(好梅實里)에 있는 전나무가 모두 쓰러졌으며, 금곡리(金谷里) 이인여(李仁汝)의 논에는 벼락이 떨어져 약 한마지기 가량을 전멸시켰다고 한다.²¹⁾

Ⅲ. 일상에서의 식민지의 그늘

일제시기 화성지역 주민들은 식민지 지역민으로서의 일상을 살고 있었으며, 그 삶의 내면에는 늘 억압과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24년 3월 12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파리 없는 이상촌, 부인들

19) 「水原 麻道面の 蠶繭品評」, 『毎日申報』 1923년 9월 20일. ‘水原郡 麻道面에서는 去 13日 面事務所에서 春蠶繭의 品評會를 開催하였는데 出品繭은 全部 日支交雜 白繭種 97점 其他에 參考品으로 絹織物 2점 蠶具 3점의 出品이 有하였었으며 審査長으로는 郡에서 河波 技手が 派遣되어 審査의 任에 當하였고 褒賞授與式에는 鶴崎 水原郡守, 石橋警察署長. 梅原勸業 課長任席 近隣 面長 列席한 後 盛會裡에 舉行되었는 바 式中 鶴崎郡守의 告辭並石橋署長의 祝辭는 皆旱水災害의 多한 朝鮮農業으로 하여금 安全히 保護救濟하는 것 此 養蠶業인 가답에 農業者는 當然行할 業務인 것을 力說하여 一般 參列者에게 多大한 感動을 興하였고 同夜는 幻燈으로써 勤儉貯蓄衛生産業을 映寫하여 一般에게 觀覽하게 하였는데 麻道面으로는 未曾有의 殷賑이었던라’

20) 「雹害로 因하여 收穫은 半減 일반 農가의 人心은 불안 水原西新面の 慘禍」, 『毎日申報』 1932년 11월 1일.

21) 「水原郡廳에 一日落雷數處」, 『조선일보』 1934년 8월 5일.

힘으로'라는 제목 하에 내선융화를 강조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여름의 전염병 매개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파리(蠅)는 조선전토 어디를 가든지 없는 곳이 없음을 일반이 다 아는 바이나 이에 일년을 통하여 파리의 형적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데 우리 조선에는 가장 이상한 곳이 하나 있다. 이곳은 水原서 약 오십리 쯤 격해있는 八灘面 西場里라 하는 곳으로 보통학교까지 있는 원간히 큰 부락인데 이곳에도 이전에는 파리가 많아서 해마다 여름이면 다른 곳에지지 않게 파리로 곤란을 당하던 곳인데 그것이 오늘과 같이 한 마리도 없이 구제하게 된 데에는 이 부락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위생에 대한 각성에 의한 위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인들로 하여금 위생에 대한 사상을 각성케한 것은 그곳 경찰관주재소 주임순사 부장 竹内皆吉씨의 부인 次子씨의 노력이 원동력이 되었다한다. 이 차자 부인은 고등여학교 출신으로 그 부군 죽내씨와 같이 십년 가까이 조선에 있어서 조선말도 매우 류량한 터인데 대정 십년 조선 각지에 호렐자가 유행할 때에 도선부인들이 예방주사에 응치 아니함으로 차자부인은 크게 근심하여 각 가정을 호호방문하며 예방주사의 필요를 정성껏 설명한 결과 그곳부인들은 그에 감동하여 전부 주사를 맞혔는데 이것이 동기가 되어 대정 10년에 婦人懇親會를 조직하고 매월에 한번씩 茶話會를 열고 무인 일동이 모히여 부인의 敎養에 관하여 서로 연구하며 한편으로 파리구제에 전력을 쓰게되어 차자부인은 각 부락마다 조희주머니 세 개씩을 나누어 주어 그 속에 파리가 꼭 차거든 주재소로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실행한 결과 그 효력이 현저히 나타나서 드디어 오늘에는 파리없는 부락이 되었다. 이 같이 되었으므로 차자씨는 그 지방부인들과 골육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피차간 일전의 차별이 없이 서로 그곳의 발전에 대하여 노력하는 중이라고 그 근방에는 이곳 부인들의 활동에 대하여 모다 흠모하는 중이라한다.²²⁾

22) 「파리 하나 없는 이상촌, 부인들 힘으로」, 『每日申報』 1924년 3월 12일.

위의 내용에서 보면 팔탄면 서장리는 보통학교까지 있는 큰 부락인데 지난 일년 동안 파리가 없는 위생이 철저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 주재소의 순사부장 줄내개길(竹內皆吉)의 부인 차자(次子)의 노력이었다. 그녀는 고등여학교 출신으로 조선말도 유창하게 잘하며, 1921년 국내에서 호열자가 유행했을 때에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선부인들에게 정성껏 주사를 놓아주었다. 이후 부인간친회(婦人懇親會)를 조직하고 매월 다과회(茶話會)를 열어 부인 교양에 힘쓰는 한편, 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지방 부인들과 골목같이 친밀함을 유지하여 서로 차별 없이 발전을 도모함으로 근방의 부인들이 모두 흠모한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매일신보』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을 선전하고 있던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27년 8월 1일에는 『동아일보』 발안분국의 후원 하에 삼귀학생친목회 주최로 재경 유학생 강연회가 삼귀고등보통학교에서 있었다. 이는 방학 중에 전개된 학생들의 계몽활동의 일환이었는데 연극이나 활동사진 등의 상연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최초의 일이었다.²³⁾

강연회는 우정면 면장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하여 입추의 여지없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경제대 농과생 박선일(朴善日)의 ‘농업진흥의 사명을 부(負)한 농촌청년에게’와 고공의용화학과(高工應用化學科)생 이명림(李明林)의 ‘공업으로 본 우리의 희망’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보전문과(普專法科)생 김형규(金珥圭)는 ‘자연생장과 조선인의 노력’라는 강연에서 삼귀지역 인사들의 무성으로 공립보통학교에 6년제 제도가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며, ‘활발한 연설을 하여 임석한 경찰관의 눈이 뚝굴해졌다’고

23) 「夏期休暇를 利用 講演, 演劇, 活寫 等 내 故鄉 爲해 活動하는 學生들」, 『동아일보』 1927년 7월 24일.

하였다. 또한 조암(朝岩)시장이 주색가(酒色家)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고 한다.²⁴⁾

1928년 11월 1일에는 양감청년회가 농한기에 무산노동자와 농민 및 그 자녀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노동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주재소에서 강습회라는 명칭이 불온할 뿐 아니라, 적화 선전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쇄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너무나 심한 경찰의 간섭이라 하며, 큰 유감을 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기사되기도 하였다. 1920년 12월 24일 오후 9시경 서신면 광평리에 주소를 둔 이윤강(李允康)은 이충헌(李忠憲)·이승희(李承熙) 등과 함께 충청남도 대전군 진잠면(鎭岑面) 대정리(大井里)에 있는 최일영(崔駟永)의 집에 들어가 육혈포로 위협하고 군자금 2만원을 모집하고자 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원지청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²⁶⁾ 1925년 6월에는 향남면 송곡리의 재산가 이덕우(李德雨)의 집에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 명의의 협박장이 수차례에 걸쳐 발송되었는데 발송지는 모두 경성임으로 경찰이 엄중 탐문 중이라 하였다.²⁷⁾

1927년 1월에는 음덕면 신외리의 부호 김용현(朴容鉉)의 집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찾아온 청년에게 호신용을 가지고 있던 장총을 쏘아 쫓아낸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⁸⁾ 이에 남양주재소에서는 수원본서에 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경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작

24) 「三槐學生講演, 盛況裡에 終幕」, 『동아일보』 1927년 8월 4일.

25) 「水原 講習會도 警察이 閉鎖命令, 덥혀노코 상부의 명령一般의 非難이 만타」, 『조선일보』 1928년 11월 7일.

26) 「假政府出張員이라고 자칭한 자」, 『每日申報』 1921년 5월 28일.

27) 「脅迫文頻頻 경찰부활동 상해」, 『동아일보』 1925년 6월 13일.

28) 「水原에 時局犯人 主人이 率先放銃 상해 밤중에 문 두드리고 군자금을 강청 주인이 방총하니 다짜고짜로 도주 犯人의 拳銃은 장난감?」, 『동아일보』 1927년 1월 12일.

업을 전개했는데 군자금 모집원이 소지하고 있던 총은 아이들의 장난감인 것으로 보이며, 단도(短刀) 1개와 조선 지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총소리에 놀란 범인은 10여리 가량 떨어진 문호리(文湖里)까지 도망갔으며,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빈집에 자다가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는 원적을 비봉면 자안리(紫安里)에 두고 경성 일본인 집에서 고용으로 일하던 심건섭(沈健燮)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³⁰⁾

한편 일제의 식민지체제의 강화를 위해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1924년 2월에는 일본의 기원절(紀元節)을 맞이하여 경기도 관내의 면장과 면직원, 학교조합 관리자로서 성적이 우수한자, 풍교(風敎)와 자선 및 기타 공공사업에 솔선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해 표창하였다. 수원군에서는 봉담면장 이응헌(李應憲)이 수상하였으며, ‘고상 우아한 탁상용 시계’가 주어졌다.³¹⁾ 1927년 1월에는 10년 동안 면서기로 전력을 다해 온 음덕면 서기 홍필화(洪弼和)가 표창을 받았으며, 남양공립보통학교에서 군청과 면직원 및 지역유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森川) 수원군수가 표창을 전달하였다.³²⁾

한편 1927년 6월에는 발안시장과 수원읍 사이의 전화가설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京畿道 水原郡 鄉南面 發安市場은 水原邑과 六十餘里(朝鮮里程)의 相距로 物貨去來가 不絶한 繁華地인 바 通話上 不便이 莫甚하여 一般은 恒

29) 「南陽時局犯後報」,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

30) 「南陽時局犯의 本名은 沈健燮」, 『동아일보』 1927년 1월 15일.

31) 「면장 吏員 표창」, 『每日申報』 1924년 2월 19일. 「京畿吏員篤行表彰」, 『동아일보』 1924년 2월 20일. 그 밖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開城郡 興敎面長 李鳳秀, 振威郡 芙蓉面 書記 鄭春根, 楊平 學校組合管理者 山中梅次郎, 驪州 學校組合管理者 筭本次八 始興郡 秀岩面 下上里 文明錫, 開城郡 松都面 高麗町 金鎮弘’

32) 「京畿吏員篤行表彰」, 『동아일보』, 1924년 2월 20일.

常 苦慮中이던 바 今番 發安 郵便所에서는 管内 各面 面長과 協議하여 面民에게 附加金으로 豫算이 되었으므로 今年 七月부터 工事を 始作하여 若 十 餘日 동안에 開通케하리라더라.³³⁾

향남면의 발안시장은 60여리 떨어져있는 수원읍과 물화(物貨)의 거래가 끊이지 않는 번화지(繁華地)였으나 통화상(通話上)에 불편이 막심하여 일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발안 우편소에서는 전화가설 문제를 관내의 면장들과 협의하였으며, 면민(面民)에게 거출하는 부가금(附加金)으로 예산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의 전화가설과 관련한 이같은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 공공정책이 갖고 있던 식민지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일전쟁 이후 일제의 전시통제정책이 강화되자 화성지역 주민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국방헌금이나 홀병헌금의 헌납³⁴⁾이나 애국기 수원호의 헌납을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京畿道 水原郡에서는 梁聖寬씨외 3명의 發起에 의하여 「愛國機 水原號」의 헌납운동을 이르고 있는데 去 9월 21일의 發起人會席上에서 1만4천원의 헌금이 모힌 이래 豫定額이든 4만7천원을 넘기었으므로 許郡守가 대표하여 日前 軍司令部를 訪問, 陸軍機 1機の 헌금수속을 발벗다. 더욱 7천원의 殘餘基金으로 다시 海軍機를 헌납코저 運動을 이르고 있다.³⁵⁾

33) 「電話架設準備 水原發安間에」, 『동아일보』 1927년 6월 21일.

34) 국방헌금이나 홀병헌금 기사는 「水原서도 獻金」, 『조선일보』 1937년 8월 4일. 「水原서도 獻金」, 『조선일보』 1937년 8월 10일 등 2건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100원 梅松面 野木里 朴興來, 100원 東灘面 長芝里 朴俊東, 100원 發安市 佐坂再吉, 56원 10전 陰德面 南陽里 南陽酒造場 從業員 一同 代表 鄭榮德, 5원 陰德面 南陽里 耆老會員 一同, 35원 50전 鄉南面 愛國婦人會 會員 一同 등이 현재의 화성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愛國金字塔, 銃后의 半島獻金三百餘萬圓」, 『삼천리 문학』 제1집, 1938년 1월.

애국기 수원호 헌납운동은 수원군에서 양성관(梁聖寬)의 3인의 발기로 1937년 9월 21에 시작되었는데 발기인회 석상에서 1만 4000여원의 헌금이 모인 이래 예정금 4만 7천을 넘겨 수원군수가 육군사령부를 방문하여 헌금 수속을 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잔금 7천원으로 다시 해군기 헌납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정면 호곡리의 김연옥(金然郁) 1,500원, 우정면 송영만(宋榮晩) 800원, 봉담면 조궁환(曹兢煥) 40원, 음덕면 배인순(裴仁淳) 100원, 정과진(鄭菓眞) 300원 등의 헌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⁶⁾

1938년 10월에는 매송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채권저축에 참여하고 있었다.

水原郡 梅松面 職員들은 面內一般에게 貯蓄獎勵의 模範을 示하기 爲하여 愛國貯金保險貯蓄을 行하고 있으나 骸等貯金은 別般 趣味가 無함으로 職員一同은 相議 後에 各自俸給中에서는 더 貯蓄할 餘在가 無하니 每月末 旅費中에서 一人前 1圓 15錢씩을 除하여 債券貯蓄組合을 組織하고 勤業債券을 購入分配하되 此 分配는 每月 抽籤으로 所持者를 定하여 一人當債券 3枚 以上을 所持하기로 되었다.³⁷⁾

면사무소 직원들은 이미 애국저금이나 보험저축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각자의 봉급으로는 저축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여비 중에 1일당 1원 50전씩을 제하여 채권저축조합을 결성하고 근업채권(勤業債券)을 구입하여 매월 추첨으로 1인당 3매이상의 채권을 소지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36) 「愛國機 ‘水原號’에 二萬五千圓 獻金, 水原各界有志의 熱誠」, 『조선일보』 1937년 10월 3일.

37) 「梅松面職員等 債券貯蓄實行」, 『毎日申報』 1938년 10월 8일.

뿐만 아니라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고 4월부터 실시되자 수원지역에서도 지원병 선발이 이루어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39년 12월 10일에는 서신면의 육군지원병후원회에서는 서신소학교에서 관민 300여명이 모여 지원병입소축하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소하게 된 대상자는 흥법리에 사는 당년 20세의 모범청년 한상덕(韓相德)이었다. 1938년 8월 10일 정남면에서는 근로보국단 발회식을 거행하고 황군의 분투노력에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열정으로 위문대(慰問袋) 250개를 거출하여 불원간 출정황군에게 보내기로 하는 등 일제의 전시동원에 다양한 형태로 순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밖에 1938년 12월 우정면에서는 아직도 이중과세(二重過歲)를 하는 부락이 있다고 하며 면 직원을 동원하여 음력과세(陰曆過歲)를 절대 폐지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³⁹⁾

IV. 가난과 질병, 그리고 지역민으로서의 일상

일제시기 화성지역민의 삶은 식민지시기 다른 지역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질병, 자선과 미담, 그리고 일상의 범죄⁴⁰⁾를 포함한 다

38) 「共同으로 勤勞報國코 慰問袋多數獻納 水原正南面民赤誠」, 『每日申報』 1938년 08월 12일.

39) 「二重過歲廢止 雨汀面서 督勵」, 『每日申報』 1938년 12월 11일.

40) 일제시기의 신문자료에는 지역민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원을 속여 먹고」, 『每日申報』 1914년 7월 9일. 「同居하자고 詐欺, 삼백원 가지고 도망」, 『每日申報』 1915년 11월 24일. 「僞刑事가 요리점에서 사골사람을 협박하고 강탈」, 『每日申報』 1921년 4월 22일. 「刑事라하고 強盜, 송도사람을 위협」, 『동아일보』 1921년 5월 29일. 「不正代書業者 印紙代金橫領」, 『동아일보』 1925년 4월 2일. 「萬儀寺에 強盜」, 『동아

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⁴¹⁾ 이 가운데 가난과 질병은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지역민 혹은 개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절박한 문제였으며,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감내해야 했던 시련이었으며 고통이었다.

1918년 3월 30일에는 비봉면에서 주막업을 하던 42세의 최모(崔謀)는 ‘가계가 적빈하여’ 하루에 한 끼도 끓여 먹을 수가 없어서 7세 된 장남을 봉남면의 산으로 데려가 산채로 묻어 죽인 죄로 수원경찰서에 체포되었다.⁴²⁾ 같은 해 5월 경에는 비봉면 자안리(紫安里)에 사는 32세의 이부적(李富積)이 5세 된 맏딸 만복(萬福)을 땅에 묻어 죽이는 사건도 있었다. 이부적은 5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소작농으로 워낙 가세가 비탄한데다가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했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정남면 용수리 산중에서 딸을 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 그런데 3·1운동 직전인 1918년의 이 같은 사건은 국내에서 미가(米價)의 폭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정의 극단적 악화가 원인이 있었던

일보』 1927년 2월 26일. 「大膽한 牛賊」, 『동아일보』 1927년 9월 8일. 「大豆 三石 竊取, 수원에 도난 빈번」, 『조선일보』 1926년 2월 14일. 「水原 萬儀寺 強盜 京城市內로 侵入, 수원경찰서의 의뢰받고 鐘路署 突然 大活動」, 『조선일보』 1927년 2월 25일. 「丈人이 사위돈 竊取, 1600여원을」, 『조선일보』 1927년 12월 20일. 「보험외교원의 협잡, 생존한 사람을 죽었다고 속이고 양로보험금 5천원을 사취해」, 『每日申報』 1924년 4월 1일. 「공금횡령, 한 명은 잡히고 한 명은 수사 중」, 『每日申報』 1924년 6월 25일. 「蕩子の 말로, 조카의 집에 불 놓고 2년 징역을 받았다」, 『每日申報』 1924년 11월 23일. 「車中逢賊, 소사라가는 돈을 송두리째 빼앗겨」, 『每日申報』 1925년 2월 26일. 「이런手段도 있다-老人속인 惡黨들」, 『每日申報』 1939년 8월 3일. 「自動車 사주마 二千圓을 橫領」, 『每日申報』 1940년 4월 12일. 「터무니없는 말로 二百四十圓詐取」, 『每日申報』 1941년 4월 25일.

41)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몇 가지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親父를 被告로, 계약을 실행하라고 딸이 재판소에 진장」, 『每日申報』 1922년 11월 14일. 「가련히 동사한 자」, 『每日申報』 1920년 1월 8일. 「家屋이 崩壞하여 三名이 重輕傷, 家屋이 崩壞하여 三名이 重輕傷 한 명은 생명이 위태」, 『동아일보』 1923년 6월 19일. 「子息敗家로 自殺, 아들이 재산을 썼다고 비판 끝에 정신이상」, 『동아일보』 1925년 4월 30일.

42) 「親子를 生埋 무도한 아버의 악독한 짓」, 『每日申報』 1918년 4월 5일.

43) 「양육하기 곤란하여 5세아를 生埋, 발각되어 검거됨」, 『每日申報』 1918년 5월 3일.

것으로 보인다.⁴⁴⁾ 1925년 5월 7일에는 음덕면 남양리에 사는 송시은(宋時銀)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양젓물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 원인 역시 상황 곤란이었다.⁴⁵⁾

1929년에 시작된 농업공황도 지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경기로 인하여 일반의 생계가 날로 피폐하여지는 중 더구나 春窮을 당하여는 더욱 비참한 구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스니 이야말로 조선 농촌이 아니고는 보지 못할 참담한 현상이다 이제 수원지방의 세농민의 기구한 생애를 살피 건데 방방곡곡이 破産하는 무리가 속출하여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이가 날로 격증하여 가지가지로 참담한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바 군내 雨汀 長安 梅松 西新 陰德 麻道면 등지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바다에 나가 海草를 뜯어다가 겨우 연명하는 무리가 부지기 수라하며 기타 각면 각 촌에서는 부녀자까지 총출동을 하여 野菜를 캐다가 그날그날의 기구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참한 현상을 짓고 있는 중 도로 부사공사(道路敷砂工事)에 최하로 자갈(砂利) 30상자씩 해오라는 과중한 賦役을 받아 놓고는 매일 성화같은 독촉에 일반은 당국의 몰인정함을 비난하여 마지 안는다 한다.⁴⁶⁾

4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축적된 일본의 잉여자본은 조선의 쌀을 투기대상으로 삼았으며, 물가의 폭등은 조선 민중의 생활을 도탄이 빠뜨리고 있었다. 1917년 전반기에 정미(精米) 기준의 쌀값이 1석당 14~15원대였던 것이 후반기에는 22~23원대로 올랐으며, 1918년 후반기에는 38~39원대로 폭등하였다, 그리고 3·1운동 직전이 1919년 2월에는 43원 57전으로 올랐는데 당시 언론에서 이러한 쌀값의 상황을 ‘사람을 죽일 시세’라고 하였다.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 독립운동사』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45) 「青春夫婦飲毒 생활난으로」, 『동아일보』 1925년 5월 10일.

46) 「雪上加霜의 賦役, 海草로 延命한 細民, 파산도주하는 사람 속출한다고, 慘憺한 水原地方 民」, 『조선일보』 1931년 4월 14일.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 1931년 4월 14일자 기사인데 갈수록 심해지는 불경기로 인해 조선의 농촌은 참담한 상황이며, 우정, 장안, 매송, 서신, 음덕, 마도면 등에서는 바닷가에서 해초(海草)를 뜯어다가 연명하는 무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부지기수이며, 각 면과 촌에서는 부녀자들까지 총 출동하여 야채(野菜)를 캐다가 그날그날을 지내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제는 호마다 도로 부사공사(道路敷砂工事)에 쓸 자갈을 최소 30상자씩 해오라는 과중한 부역(賦役)을 부과해 놓고 매일같이 독촉하는 몰인정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질병의 경우는 폐결핵이나 발진티브스, 성홍열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의료사고도 있었다. 1925년 3월 남양에서는 독감(毒感)이 유행하여 전 인구의 7할 이상이 걸렸으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었다.⁴⁷⁾ 1926년 12월 12일에는 음덕면 남양리에 사는 23세의 백남규(白南奎)가 폐병에 걸려 사망했는데 부인인 박춘월(朴春月, 27세)도 전염되어 발인을 준비하던 중 14일 아침에 사망하였다.⁴⁸⁾

1927년 4월에는 음덕면 남양리에서 발진티브스가 발병하여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水原郡 陰德面 南陽里에는 근일 “발진지부쓰”라는 염병이 발생하여 同里 諸永俊의 부부는 벌써 죽고 아직 창궐 중인데 그의 열두 살 먹은 아들을 비롯하여 세 어린 것들은 친족조차 없어 의지할 데가 없이 손을 마주 잡고 어머니를 부르고 우는 것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다더라(남양)⁴⁹⁾

47) 全人口七割以上, 南陽에 猖獗한 極하는 毒感, 水原郡 南陽에는 毒感이 流行하여 各面里 家家戶戶에 患者가 增加되어 只今 患者가 全人口七割以上에 達하며 死亡者數도 늘어간다고(南陽), 『동아일보』 1925년 3월 10일.

48) 「가장의 장례날 그의 처도 병사」, 『동아일보』 1926년 12월 17일.

발진티브스에 걸린 제영준(諸永俊) 부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질병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데 어린 세자녀는 친척조차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것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전염병에 걸려 부모가 사망한 어린 자녀들은 총독부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1928년 2월에는 비봉면 삼화리에서 발진티브스가 발병하여 차태형(車泰亨)의 가족 3명 외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⁴⁹⁾ 그리고 같은 해 1월부터 연말까지는 수원군 전지역에 성홍열(猩紅熱)이 발병하여 29명이 사망하였으며, 수원경찰서에서는 11월 30일부터 각 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수원공회당에서 일반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¹⁾

이밖에 1923년 8월 수원 경찰서에서는 향촌부녀자들의 종두 접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군 21개 면에서 1개 면당 약 30인 정도의 여자 종두술(種痘術) 강습생을 모집하여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수원 자혜의원 의사 오기환(吳箕煥)을 초청하여 강습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의료사고로는 1923년 8월에는 안질(眼疾)을 종두(種痘)로 치료하여 실명하는 예가 있었다.

水原郡 陰德面 松林里 669번지에 사는 의생 박殷彬(69)은 수원경찰서에 잡혀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인데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즉 그는 종래에도 여

49) 「傳染病에 父母 잃고 彷徨하는 두 아이, 친척도 없어 갈 곳을 몰라, 水原南陽에 發疹病 流行」, 『동아일보』 1927년 4월 19일.

50) 「南陽發疹病」, 『동아일보』 1928년 2월 7일.

51) 「今年中에 二十九名 死亡, 수원경찰서의 猩紅熱統計」, 『조선일보』 1928년 12월 6일. 「水原에 猩紅熱, 경찰은 예방에 고심」, 『조선일보』 1928년 1월 31일.

52) 「女子種痘術講習會」, 『동아일보』 1923년 8월 19일.

러 번 환자에게 엉터리로 치료를 행하여 당국으로부터 수삼 차 처벌을 당한 자로 얼마 전에는 그곳 西新面 龍頭里에 사는 金鐘西의 둘째 아들 金壽永(六)이가 눈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치료를 구하니 그는 즉시 쾌차된다 말하고 앞이마와 두관지 뼈 위에 종두를 넣었는데 그 아해는 그 다음날 그 종두 넣은 곳이 모두 통통 붓고 눈에서는 검은 물이 떨어지며 심히 고통을 함으로 그의 부모는 그 아해를 데리고 다시 그에게 가서 진실을 구한 즉 그는 염려없다 하고 먹는 약 두 가지를 주었다. 그러나 그 아해는 약을 먹기도 전에 두 눈이 모두 굳어지며 그만 □수가 되었는데 이에 그의 부모는 그의 불법한 치료에 분개하여 이 사실을 소관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므로 그는 그와 같이 체포된 것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이후 그 관내에 있는 580명의 의생에게 엄중한 취테를 행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무리한 치료를 하는 자에게는 조금도 용서치 않고 단연한 처치를 내려 이러한 폐단을 없이 하리라더라.⁵³⁾

위의 내용에서 보면 음덕면 송림리에 사는 의생 박은빈(朴殷彬)은 여러 차례 환자들을 엉터리로 치료하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인데 서신면 용두리에사는 김종서(金鐘西)의 6세된 둘째 아들 수영(壽永)이 눈병에 걸려 오래 동안 고생해 오던 중에 박은빈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쾌차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앞 이마 등에 종두를 하였고 병세가 악화되자 약을 잘못 써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경찰에 고소당한 박은빈을 구속되었으며,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관내의 의생 580명에 대해 무리한 치료를 행하는 자는 엄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매일신보』 1926년 5월 9일자 기사에 의하면 봉담면 하가등리(下加等里)사는 의생 이계승(李啓承)의 장남 이유근(李裕根)은 부친이 7년부터 몸이 통통 부는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고 죽게

53) 「眼疾에 種痘治療, 남의 자식의 눈을 멀어」, 『동아일보』 1923년 8월 15일.

되자 자신의 왼쪽 넓적다리에서 약 한치가량의 살을 베어 소고기에 섞어 먹었는데 우연히 병이 쾌차하자 수원 각처에서는 ‘사람의 고기는 만병에 통효’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수원경찰서에서는 엄중히 설유증이라고 하였다.⁵⁴⁾

이밖에 언론자료에 보이는 지역민의 일상으로는 우선 1926년 2월 20일에는 남양면 유지(有志)들의 발기로 척사대회(擲柳大會, 윗놀이) 개최했는데 개인의 회비는 4원(圓)이며, 기생가무(妓生歌舞)와 그 외에 재미 있는 여흥이 있었다.⁵⁵⁾

마을 단위로 운동경기가 개최되기도 했는데 1925년 5월 10일에는 반월면에서 궁술대회(弓術大會)가 개최되어 200여명의 ‘한량(閑良)’들과 무려 3,000여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⁵⁶⁾ 1928년 2월 2월 26일에는 향남면의 발안 연무회(鍊武會)가 주최하고 지역유지들이 후원한 검도대회가 발안소학교 교정에서 있었다. 일기(日氣)가 온화한 가운데 ‘관객은 예상외로 만원(滿員)이었으며’ 일본인 청룡치(淸隆治)와 등본수의(藤本秀義)가 심판이었고 수상자는 서정운(徐廷允), 박수남(朴壽男)이었다.⁵⁷⁾ 음덕면 남양시장의 상인들은 1929년 7월 8일(음력)부터 23일까지 4일장마다 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상품으로 일등은 소한마리, 이등은 송아지 한마리, 3등은 광목 반필, 4등은 마포(麻布) 한필이었다.⁵⁸⁾

1931년 2월 1일에는 양감면 정문리에서 전통 민속 경기인 얼네공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얼레공은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유사한 운동경기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전통 격구(擊毬)의 일종이다.⁵⁹⁾

54) 「人肉이 萬病通治」, 『동아일보』 1926년 5월 9일.

55) 「舊正各地擲柳」, 『동아일보』 1926년 2월 16일.

56) 「半月面에 弓術大會」, 『동아일보』 1925년 5월 16일.

57) 「發安劍道競技」, 『동아일보』 1928년 3월 2일.

58) 「南陽씨름大會」, 『동아일보』 1929년 8월 13일.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었다.

水原郡 楊甘面 旌問里에 있는 수원동맹 양감지부에서는 『우리 프로테타리아 소년들도 체육을 장려하자』는 이유로 열네공 대회를 각 사회단체와 신문지국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는 바 이것이 첫 시험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니 만치 각지에서 만히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며 그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時日 二月 一日 午前 十時

場所 水原郡 楊甘面 龍沼里 前川邊(西井里驛 下車 西北間十里)

參加金一組 五十錢

參加資格 十八歲 以上の 少年少女로서 一組의 單位는 五人式

規定 用球는 고무製 堅球 木杖은 具經木 四尺 限

申請 當日 競技 前까지 各 支部 事務所

其他 詳細는 直接 問議

主催 水原 少年同盟 楊甘支部

後援 水原 青年同盟 楊甘支部 東亞日報社 烏山分局 朝鮮日報 烏山支局 별나라社 楊甘支社⁶⁰⁾

위의 내용에서 보면 본 대회는 프로테타리아 소년 소녀들의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수원소년동맹 양감지부에서 주최하였으며, 양감면 용소리 전천변에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남녀 5인이 한조였고 사용구는 고무제 견구(堅球)였으며, 목장(木杖)은 4척 정도였는데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 동아일보사 오산분국, 조선일보 오산지국, 별나라사 양감지사⁶¹⁾

59) 이태신, 「한국의 하키」,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000.

60) 「열네공 大會, 수원 양감에서」,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

61) 별나라사는 1926년 6월 소년잡지 『별나라』를 창간했던 출판사인 것으로 보이며,

등이 후원하고 있었다.

효행 및 미거(美舉)로 불린 자선에 관한 기사도 여러 건이 보도되었는데 음덕면 남양리의 박래환(朴來煥)은 95세의 조모(祖母)와 78세의 노모를 모시면서 자녀와 사환 등이 있으나 시고(媼姑)의 의식주와 관련 탕약 등을 시중드는 것이 갖 시집은 며느리 같이 섬겨, 인근 동리에서 효성이 지극하여 옛날의 당부인(唐夫人)과 같다고 하였다.⁶²⁾

1919년 12월에는 봉담면 분천리(汾川里)의 자산가 나중석(羅重錫)이 소작인들에게 도조(賭租)를 경감해 주어 주위 칭송을 받았으며,⁶³⁾ 1920년 5월 하순에는 우정면 화전리(花田里)에 사는 김연설(金然嵩)은 우정면과 장안면에 사는 빈민 500여회의 호세(戶稅) 500원을 부담하여 활불(活佛)이라 칭송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음덕면 남양의원의 공의(公醫) 나원용(羅元容)은 1923년 12월에 개업한 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왔는데 1925년 10월에는 『동아일보』 남양분국의 후원으로 40일간 음덕, 비봉, 마도, 송산, 서신의 5개면에서 적빈환자(赤貧患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⁶⁵⁾ 팔탄면 구장리(舊場里)의 윤원영(尹元榮)은 원래 사회사업에 공헌이 많던 인물이었는데 1925년 4월 팔탄면 인근이 미(未) 개간지 89정보를 개간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⁶⁶⁾

1934년 6월 10일에는 문예잡지 『문학창조』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창간호에는 ‘문학유산의 계승과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라는 박승극의 평론이 게재되어 있었다.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62) 「有是老孝婦」, 『동아일보』 1920년 4월 25일.

63) 「羅氏의 美舉」, 『每日申報』 1919년 12월 10일.

64) 「雨汀面의 活佛」, 『每日申報』 1920년 6월 9일.

65) 「特志와 慈善 △羅醫師의 慈善」, 『동아일보』 1925년 10월 24일. 나원용은 1924년 12월에도 개업 1주년을 기념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羅公醫의 慈善」, 『동아일보』 1924년 12월 13일.

66) 「八十九町步를 八十九 町步를 開墾하여 貧民에게 分給, ◇尹元榮氏의 篤志」, 『동

이밖에도 화성지역에서 있었던 일로는 1919년 5월에는 비봉면 자안리(紫安里)의 공동묘지에서 수 백년 묵은 요호(妖狐)라고 소문난 여우가 분묘 27좌를 파고 시체를 파먹었으며, 파이지 않은 묘가 없어, 경찰관 주재소에서 여우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⁶⁷⁾ 1925년 4월 10일에는 정남면 옹지곡산(翁支谷山)에 있는 고분에서 석관(石棺) 1개와 엽전(葉錢) 798개와 도기(陶器) 2개를 발굴했는데 드물게 보는 진품이어서 경복궁 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보내고자 수원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고 하였다.⁶⁸⁾

1928년 4월 21일에는 팔탄면 덕우리(德祐里)에 사는 이한구(李漢求)의 19세 부인이 생후 9개월쯤 된 유아를 데리고 수원 화성자동차회사 소유인 수원 발안 간 정기 자동차를 타고 발안으로 가던 중 혼잡한 승객 틈에 낀 아이가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다.⁶⁹⁾

이밖에 1934년 8월에는 삼남지방에 공전의 대 수재로 동포들이 피해를 당하자 팔탄면 구장리(舊場里)의 동민 박용기(朴容耆)외 45명은 5전씩 모아 2월 30전을 『조선일보』 수원지국에 보냈다.⁷⁰⁾ 1934년 11월에는 수원세무서에서 밀주법칙자(密酒法則者)를 일제 검색하고자 7·8명의 세무서원들이 서신, 송산, 마도, 비봉, 장안 등지에 출동시켰으며, 마도면 청원리(靑園里)의 차병기(車秉驥) 외 60여명에게 이들을 모두 최고 20원에서 최저 7·8원의 벌금과 과료 처분을 받았으며, 세무서에서는 이후에도 범

아일보』 1925년 4월 12일. 이밖에 자선 관련 기사로는 「이씨의 美譽」, 『每日申報』 1920년 2월 17일. 「百餘窮民을 爲하여 多數金品을 配給, 水原金顯在氏美譽」, 『조선일보』 1935년 2월 22일 등이 있다.

67) 「墓地에 妖狐, 무덤의 시체를 파 먹어」, 『每日申報』 1919년 5월 29일.

68) 「古器發掘 모두 진귀한 것」, 『每日申報』 1925년 4월 12일.

69) 「生後 九個月의 幼兒 自働車 內서 窒死 수원에서 발안 가던 도중에」 『조선일보』 1928년 4월 26일

70) 「濫情의發露 눈물겨운同情, 水原支局接收」, 『조선일보』 1934년 8월 23일.

척자가 발견되면 조금도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다.⁷¹⁾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일제시기 경기도 화성지역 주민들의 일상이나 생활단편에 대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지역은 일제시기에는 수원군에 속하였으며, 봉담, 우정, 향남, 남양, 매송, 비봉,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면지역 등이 해당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연결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염전이 발달하였으며, 해일이나 해난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복어를 잘못 먹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왕가(李王家)의 말목장이 조성되기도 했으며,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양잠업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에는 식민지의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내선융화가 강조되고 있었으며, 재경 유학생의 강연회에는 일본인 경찰의 감시받았다. 양감청년회의 야학은 적화선전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폐쇄 당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와 관련된 군자금 모집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수원읍과 발안시장 간의 전화(電話)는 면민에게 부과된 부가금을 예산으로 설치되어 일제의 식민지 공공정책이 갖는 한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국방헌금이나 흥병헌금을 내야했으며, 육군과 해군에게 제공되는 애국기 수원호 헌납운동, 혹은

71) 「水原稅務署 密酒者大檢索」, 『조선일보』 1934년 11월 28일.

전선 장병을 위한 위문대 보내기 운동 및 특별지원병 참여 등이 강요되고 있었다.

일상의 질병과 가난은 지역민을 괴롭히는 현안으로, 그 상황은 참담한 지경이었으며, 의료사고도 있었는데 주민들은 총독부권력으로부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개최된 운동경기의 경우도 검도의 경우는 일본인이 심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수원동맹 양감지부에서는 전통 민속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레공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밖에 궁술(弓術)대회와 씨름대회 등도 개최되었다.

효행과 의료 봉사나 소작료 감액 및 세금 대납 등의 자선 등이 이루어져 가난한 농어민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가난한 농민들이 5전씩을 모아 피해를 당한 삼남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내기도 했다. 산 짐승에 의해 공동묘지가 훼손되기도 했으며, 골동품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엄격한 밀주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관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계의 3·1운동과 이후 동향」, 『역사와 교육』 11, 2010, 57-87쪽.

박환, 「근대 수원지역 학교운동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2014, 5-42쪽.

수원박물관, 『수원사람들의 독립운동』, 201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14.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집』, 수원문화원, 1996.

이태신, 「한국의 하키」,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000.

조성운, 「日帝下 水原地域의 新幹會運動」, 『역사와실학』 15·16, 2000, 331-352쪽.

조성운, 「日帝下 水原地域의 農民組合運動」, 『동국역사교육』 5, 1997, 88-126쪽.

조성운, 「1920年代 水原地域의 青年運動과 水原青年同盟」,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43-273쪽.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1, 2005.

〈Abstract〉

The Daily Lives of Local Residents in
Suwon–Gun, Gyeonggi–Do and the Shadow of
the Colony as Seen through Domestic Media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Hwang, Min–ho

This article examines the everyday life and brief snippets of the residents of the current Hwaseong region, which was part of Suwon-g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articles from 'Dong-A Ilbo,' 'Chosun Ilbo,' and 'Maeil Shinbo.'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lonial situation that permeated everyday life and its shadow.

The present-day Hwaseong region encompassed areas such as Bongdam, Ujeong, Hyangnam, Namyang, Maesong, Bibong, Songsan, Seosin, Paltan, Jang-an, Yanggam, and Jeongnam-myeon within Suwon-g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a natural environment that connected the sea and land, salt fields were developed, and incidents like high tides and maritime accidents occurred.

Additionally, it was a region close to Seoul, where the Joseon royal horse ranch was established, and sericulture was encouraged. In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harmony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mphasized,

and lectures given by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were monitored by the Japanese police.

The youth association for sericulture was closed due to concerns of communist propaganda, and fundrais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carried out. Telephone lines between Suwon-eup and Balan Market were installed with additional charges imposed on villagers, which shows one aspect of the limitations of Japan's colonial public policy.

After the Sino-Japanese War, wartime controls were intensified, and residents were required to pay national defense contributions or consolation contributions. Forced activities such as the dedication of the patriotic combat plane 'Suwonho' to the Army and Navy, sending support parcels to soldiers on the frontlines, and participating in special support battalion wer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local sports events, Japanese referees were involved in kendo competitions. Damage to communal graves occurred due to wild animals, and strict rice liquor controls were enforced. It is evident that the local residents were enduring the challenges of daily life in the harsh colonial environment.

Key Words : Suwon-gun, Hwaseong-si, Joseon Royal Ranch, Balan Branch of Dong-A Ilbo, Yanggam Youth Association, Joam Market, Dedication of the Patriotic Combat Plane 'Suwonho', Suwon Jahye Clinic

이 논문은 2023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2월 6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